

[로스쿨 합격기]

## 로스쿨입학, 로또가 아닌 노력과 전략

### 임민정

- 분당중앙고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생



### I. 시작하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캠퍼스를 볼 때면 닥쳐온 중간고사에 허덕이고 있을 거라는 선배님들의 말씀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법학과를 나왔지만 학부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공부량에 허덕이고 있지만, 작년 이맘때 로스쿨만 들어가면 어떤 공부든 다 씹어먹어 주겠다고 다짐하며 LEET문제를 풀고 또 풀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즐겁게 공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시작하신 독자분들께 제 글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지만 4기 준비에 이어 1년을 더 준비해서 5기로 입학한 제 경험이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안내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정보를 후배님들께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로스쿨 입시의 특성상 전형요소가 학교마다 다 다르고 그 비중도 다르기 때문에 많이 막막했던 제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더불어 로스쿨 입학생 전국 2000명에게 2000가지의 방법론이 나올 수 있기에 제 방법이 무조건 입시준비에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그 중 한가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알려드리고 막연한 정보보다 조금은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제가 지금 6기 입시를 준비하는 후배들과 친구들에게 해주었던, 또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위주로 조금씩 적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강했던 강의나 교재 등도 되도록 명시하여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II. 4기 입시 실패의 원인

저는 사법시험 1차를 준비하다 3월 초 로스쿨로 전향한 케이스입니다. 주변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입시 준비 방법에 대한 막막함을 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정보로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4기 입시를 준비할 때의 저의 방법 들은 "무언가 입시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막연하게 했다"라고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인터넷 상에서 가장 큰 동호회는 다음 카페 "서로연"일 것입니다. 물론 "로이너스" 등 몇 개가 더 있지만 수험생의 공간은 활성화가 안 된 곳이 많아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서로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소위 서로연 죽순이 생활을 서너달 했습니다. 1~3기 수험기와 합격기를 모두 검색해서 읽어보고 스터디 모집글, 교재에 대한 글 모두 서로연에서 찾았습니다. 그 러나 정보의 과다로 정작 제게 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데에는 실패했었습니다.

우선 교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교재를 선택했고 샘플 강의도 들어보지 않고 많은 수험생이 수강한다는 강좌를 스터디를 통해 수강했습니다. 그 결과 저와 맞지 않는 교재와 강의였다라는 것을 3월 말, 4월 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재와 강의를 바꾸어 공부하기 시작했으나 수강을 7월 중순이나 되어서 겨우 끝낸 결과 저 혼자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4기 리트를 볼 때 제가 풀어본 문제는 MEET와 LEET기출 문제가 전부일 정도였으니까요.

두번째로 정보 수집이 부족했습니다. 제 경우 사법시험 준비로 인해 학부 시절부터 학점 관리에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3점대 초중반으로 로스쿨 수험생들의 평균적인 학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점을 가지고 입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4기에 모교라는 이유만으로 자교에 원서를 넣었고 그 결과 자교는 서류 전형부터 탈락하는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자교이니 자교생을 우대해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으로 아무런 정확한 정보 없이 지원한 결과 였습니다. 5기 이후

부터는 모교가 어떻게 합격생을 선발하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전까지 모교는 학점이 가장 중요한 반영요소라는 것이 수험생들 간에 공히 알려진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보조차 알지 못하고 무작정 지원자들 중에 최하위권의 학점에도 무작정 지원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세번째로 스터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내에서 스터디를 모집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었고 저도 혼자 공부한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싶어 무작정 스터디를 지원했고, 강의를 같이 수강하는 스터디에 참여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맞지 않는 강의를 수강하였기에 스터디에서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고 스터디 참여 의욕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5월 초 스터디에서 나와 혼자 공부하겠다고 결심하였지만 나태해지는 제 자신을 다잡을 수 없었습니다. 4기 입시를 끝내고 한 번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스터디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어서야 다른 스터디에서는 보통 같이 문제를 풀거나 풀이법을 고민하는 등으로 스터디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Ⅲ. 5기 입시 준비 - LEET

다시 입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입시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후 큰 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스스로 문제를 푸는 훈련이 안되어 있었다는 것을 100점대 후반으로 제가 기대한 만큼의 LEET성적이 나오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한 문제라도 내 스스로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우겠다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 1. 언어이해

언어의 경우 추리에 비해 비교적 본 시험에서도 성적이 잘 나왔던지라 기출문제의 완벽한 분석과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5월까지 PSAT의 언어추론을 스터디원들과 같이 풀어 와서 풀이를 하였고, 그 후 MEET LEET기출을 한회씩 풀어와서 전 문제에 대한 해설을 같이 하였습니다. 진도는 시간 제약상 많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맞은 문제라 해도 문제를 푸는 논리를 명확하게 세울 수 있었고 다른 스터디원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논리를 새로 배울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 경우 학원의 윤상근 선생님의 모의고사 강의를 하프 과정부터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원의 근로 장학생 모집에 지원하여 수업 관리를 하며 수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업 관리를 하려면 제한된 시간보다 5분 정도는

빨리 문제를 풀고 마킹을 해야 했기에 이 과정에서 문제풀이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 후 궁금한 것에 대해 선생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었던 것도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 사이에서 제 위치를 알 수 있어 나태해질 수 있는 막판 정리에서 자극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학원 수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분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수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력있는 스터디원을 스터디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 분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학원에서는 강사분께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5회 LEET시험에서 언어이해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다는 평이 있을 만큼 언어이해 실전 시험이 난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전 시간 부족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고 평소 모의고사 보다는 약간 점수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회 시험에서는 처음보는 LEET시험에 긴장을 하여 시험 전날 두세시간밖에 잠을 못자서 언어 시험 시간 중간에 몇 번씩 졸음이 쏟아져서 언어이해 시험에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회 시험 전날에는 정말 하루 종일 자다 시피 하여 시험날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칠 수 있었다는 것도 점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배님들, 시험 전날에는 무조건 잠 꼭 자시고, 시험 전 최소 3일은 공부 시간 늘리지 말고 꼭 쉬어서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 2. 추리논증 - 나의 취약과목

LEET시험에서 중반대에 머물 것인지 상위권에 머물 것인지는 추리논증에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추리논증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공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논증만 공부하다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리추리나 논리게임 등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고득점을 받는지 여부는 이 파트를 포기하느냐 풀어내느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경우는 논리게임은 거의 버리다시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5회 입시를 준비하면서 언어보다 추리논증에 공부시간을 더 할애하였습니다. 대신 언어와 달리 추리논증은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겠다는 욕심은 일단 잠시 누르고 기출문제를 완벽히 나만의 풀이방법으로 정리하자는 목표를 먼저 세웠습니다.

스터디에서 추리논증 기출문제를 한 문제씩 돌아가며 해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때 저의 추리논증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는 30분이상이 걸리기도 했지만 정답으로 가는 과정을 나의 논리대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많이 향상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출 문제는 일주일 동안 풀이 과정을 고민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걸려서 풀이 과정을 정립한 이후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이후 저는 추리논증에 대한 무서움을 없애기 위해 소위 말하는 양치기 문제풀이에 돌입했습니다. 시중의 문제 풀 중에 한 강사의 문제만 풀 경우 그 스타일에 익숙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학원 전국 모의고사를 작년 것과 올해 것 모두 구해서 새로운 스테디를 조직해서 시험 시간에 맞춰 풀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해설은 스테디 내에서 따로 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 했습니다. 개인적인 리뷰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추리논증은 시험 시간도 매우 길기 때문에 중간에 집중력이 흐려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 내내 집중력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풀셋을 시험 시간에 맞춰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실전 시험에서는 추리논증은 평상시 모의고사 평균 점수보다 약간 더 잘나왔기에 어느 정도 추리논증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리논증은 학원 강사분들도 논증이나 논리게임 등 각 파트별로 강약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어느 강사는 논증이 강한 대신 논리게임은 약점을 보이거나 하는 식이지요. 그러므로 어느 한 강사에게 전적으로 모든 수험 준비를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막막하다면 기본 과정 정도만 수강하여 유형을 익히고 난 후 본인만의 문제 풀이법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약한 파트를 빨리 파악하여 그 파트를 뺀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논리게임에 취약해서 일부러 그 부분의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손대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시험 전 마지막 2주간은 기출문제로 다시 돌아와 시간 맞춰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 이전 모의고사 양치기 공부때부터 시험지는 무조건 B4로 출력해서 풀었습니다. 실전 시험지와 가장 유사한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추리 뿐만 아니라 언어도 동일하게 시험지 사이즈를 키웠는데 언어는 특히 시험지가 커지면 글을 읽으며 눈이 보아야 하는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막판에는 시험지 사이즈에 익숙해지는 것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 논술

개인적으로 논술에는 고교 입시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터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회때 한 달 학원 수강 후 학원 수강을 하지 않은 결과 기출 문제도 제대로 다 써보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4회때 연설문을 작성해보라는 특이한 문제에 더욱 당황하여 내가 무엇을 쓰고 나왔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회 입시때부터는 3월부터 학원 수강을 하였습니다. 제 경우 4회 입시 때 면접 강의를 수강한 것을 기회로 문철 선생님의 토요일 강의를 꾸준히 수강하였는데, 수강생이 많아 비올적으로 잘 쓴 답안을 접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었고 첨삭을 직접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간 맞춰 학생들 사이에서 글을 직접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어 파이널 논술 과정까지는 수강하지 않았지만 본 시험때 넉넉히 시간을 남기며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제 경우 문장이 많이 길었기에 50자 이내에서 한 문장을 쓰는 연습을 선생님께서 꾸준히 제게 요구하셨는데 그 결과 문장도 간결해졌고 글자 수가 일정해져서 글 전체 몇 문장을 쓸지, 그에 따라 개요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짤 수 있었습니다.

논술은 제 주변 스터디원들이나 친구들의 경우를 볼 때 혼자 써보는 것으로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첨삭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터디원끼리 올바른 첨삭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강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논술이라 생각합니다. 학원 수강을 한과목만 할 수 있다면 전 논술을 택할 것입니다. 혼자서 준비가 안되었던 것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 IV. 공인영어준비

제가 4기 로스쿨 입시를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건국대였습니다. 많은 후배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의 장학금 수혜율은 전국 최고를 자랑합니다. 학교에 와보니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매우 좋고 교수님도 학생들이 최대한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건국대를 가겠다는 생각으로, 4기 때는 LEET공부에 치여서 토익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5기 입시 준비 때는 본격적으로 토익을 LEET보다 많은 시간 할애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건국대는 전통적으로 정량요소로 학생을 선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도 사법시험 준비하는 법대생 치고는 토익 점수가 높은 편이었지만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한동안 토익 볼 여유가 없었기에 로스쿨 입시 처음 시작할 때 제 점수는 800이 채 안되는 점수였습니다. 그러나 4회 입시 때 제대로 문제집 하나도 제대로 안 풀고 매달 시험만

치르니 점수는 900 초반대에서 더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5회 입시를 준비하며 실전 문제집을 계속 풀다 한계를 느껴 한달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남의 H 토익 학원에 실전반을 수강하였습니다. 기출로 이루어진 토익 자료와 교재들에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제게 더 도움이 되었던 것은 수업 전 아침에 스테디를 통한 문제 풀이와 해설이었습니다. 전 단어 외우는 것을 무척 싫어했던 터라 단어 시험에서 벌금을 제가 제일 많이 내는 아픔도 있었지만 문제를 시간 맞춰 풀고 돌아가며 해설하는 과정에서 감으로 답을 찍는 습관을 많이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 스테디에서 스테디원 중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LEET시험 후 이 친구와 몇 명이 더 모여서 면접 스테디도 같이 하게 되어 정말 좋은 사람들 까지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8월 시험에서 945점까지 토익 점수를 올려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국대의 입학자 토익 평균에는 약간 모자라는 점수였고 원서를 내고 나서 이 보다 10점이 더 오른 토익 성적표를 받고 이 성적표를 면접장에 들고 갈까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쉽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목표했던 건국대를 다니고 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후배님들께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토익은 하루 빨리 끝내시라는 겁니다. 빨리 목표 점수를 만들면 그만큼 LEET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목표가 900점을 만점으로 했던 외국어대나 5기에 935점을 만점으로 취급했던 시립대가 목표시라면 만점 점수만 만들면 되겠지만, LEET점수가 나오면 지원 대학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는 본인 나이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고고익선, 즉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텡스만 보는 고려대나 서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후배님들도 토익은 별도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서울대나 고려대 지원을 못할 수도 있고, 텡스보다는 토익이 점수 올리기에는 많이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 V. POST LEET

LEET시험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지망할 학교를 정하고 자소서와 학업계획서를 빨리 쓰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망할 학교는 각 군단 2개씩 정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학교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연 등 카페와 기타 다른 수단을 총동원해 합격자들의 스펙을 수집합니다. 이 때 카페 등에 있는 정보는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정보가 가장 많이 넘쳐나는 것이 이 합격자 스펙입니다. 어떤 학교에 LEET 90점대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90점대가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필할 수 있는 다른 특

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적인 스펙을 합격 가능 스펙이라 판단하셔야 하며, 본인의 스펙과 가장 비슷한 합격자 스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학원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학원가의 설명회 등을 찾아다니시고 선배 후배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합격자 스펙을 모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교가 연합해서 실시하는 설명회도 꼭 참석하셔서 정보를 모으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후 자소서와 학업계획서는 날림으로 쓰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 경우 4회 입시 때는 너무 막막했기에 올해 논술을 수강했던 문철 선생님께 자소서 첨삭까지 수업을 받았고 면접 강의까지 수강했습니다. 5회 입시 때는 4회 입시 경험을 베이스로 하여 자소서 첨삭이나 면접은 학원 수강을 하지 않고 스테디로 대체하였습니다. 5회 입시를 준비하며 면접 스테디에서는 서류 제출까지 한달여 가량을 스테디 시간에 오로지 서류 작성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수차례 다시 써오고 서로 돌려보며 첨삭을 해주는 과정에서 다른 스테디원의 자소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저의 자소서에도 좀 더 완성도를 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소서나 학업계획을 쓸 때 학교마다 특성화 영역은 별 필요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학교마다 특성화 분야를 고려해서 서류를 쓰지 않으면 25개 로스쿨 중에서 왜 이 학교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변에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나군에는 안정 지원으로 부산대에 지원했기에 두 학교 지원 서류에는 학교 특성화에 맞춰서 목표하는 법조인상을 다르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친구들과 스테디원들의 서류를 읽어본 결과 정말 이공계생은 특히 전문 변호사 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생각한 것이 특별히 없는 사람은 인권 분야 변호사가 되겠다고 쓴 글도 정말 많았습니다. 본인이 그 분야만 파겠다는 비전이 확고히 있다면 별론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글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준비는 4회 5회 입시 모두 스테디를 했는데, 스테디에서는 실천처럼 답변하고 추가질문을 하는 등 면접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주로 추가질문을 날카롭게 하는 스타일이었지라 어떤 스테디원에게는 덕분에 교수님의 압박 질문이 압박으로 안 느껴졌다는 감사인사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말이 빠른 편이라 내내 면접 스테디를 하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의 경우 서면 면접이 따로 있기에 그것만 연습하는 스테디도 별도로 조직하여 시사문제를 정리하고 답변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때 스테디원 중 몇과는 현재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도 합니다.



## VI. 글을 마치며

학교에 들어와보니 제가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였는지 실감합니다. 정말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경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기들과 선배님들 사이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만큼 로스쿨은 분명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특성화를 가지고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인생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건국대학교 로스쿨에 합격했을 때 제 주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입학하기 어렵지만 또 로스쿨에서 더 많은 기회가 제게 주어진다는 뜻이겠지요.

3년 동안 공부하느라 또 다른 고생을 해야 하지만 내 인생에 오랜만에 찾아든 합격이라는 두 글자는 제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어느 학교이든, 특별히 건국대학교에 오실 후배분들, 6기로 들어오실 후배님들께 저는 마지막으로 로스쿨은 노력하면 어느 학교이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혹자는 로스쿨 입시가 카오스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 원하는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운에만 맡겨 입시를 치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진부한 말이지만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습니다. 학점은 상대적으로 약한 대신 LEET와 영어점수에서 약간의 우위에 있던 저는 건국대학교가 제게 맞는 학교라 생각하여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학교를 찾으시고, 또 그 강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면 내년 6기로 지금의 저와 같이 다가오는 중간고사에 허덕이지만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께 적는 글에 한번도 못해본 감사의 말씀을 몇자 적으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믿음이 작은 제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어려운 경제 형편에도 만말이 하고 싶은 것 믿고 기다려 주신 부모님, 자기 공부도 힘든데 언니 뒷바라지 해준다고 고생한 하나뿐인 내 여동생, 입학전에 뵙겠다고 해놓고선 바빠서 찾아가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맘뿐인 H 로스쿨학원 선생님들(방학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부터 도움 주시고 많은 가르침 주신 L 형법 선생님(변시 불고 졸업할 때까지 조금만 더 신세지겠습니다), 그리고 다 적지 못한 스터디원들(각 학교에서 다 1등 먹어버려라!)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소심하게 글로나마 전합니다.